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도자료

보도 일시	(온라인) 2026. 7. 15.(수) 12:00
	(지 면) 2026. 7. 16.(목) 조간

담당 부서	조사연구팀	장새롬 주임연구원 (02-3460-9036) 윤영근 팀장 (02-3460-9033)
홍보 담당	기획홍보팀	이승현 대리 (02-3460-9052)

한국 R&D 인프라 세계 최상위권...기업활력·인재유치는 과제

- 산기협, 「2026년 한국의 세계경쟁력」 보고서 발간
- 과학 인프라 2위, 경영활동 효율 49위, 고급 해외인력 유인 환경 61위로 나타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 산하 산업기술혁신연구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6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과 「World Talent Report 2025」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경쟁력과 R&D 인프라, 기업경영 효율, 인재 유치 경쟁력을 주요국과 비교·분석한 「2026년 한국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IMD는 '자국 기업에게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경쟁력으로 정의하고 1989년부터 매년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세계 인재 경쟁력 순위를 발표

이번 보고서는 2026년 세계경쟁력 순위뿐 아니라, 2025년 인재경쟁력 지표를 함께 분석해 한국 기업과 연구소가 주목해야 할 R&D 기반, 기업 운영 효율, 고급인재 유치·정착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과학기술 인프라가 기업의 혁신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한국 기업 환경이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주요국과 비교했다.

IMD의 2026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70개국 중 21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단계 상승했다. 2024년 20위에서 2025년 27위로 하락했으나, 올해 다시 21위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세계 경쟁력 1위는 싱가포르였으며, 홍콩, 스위스, 대만, 아랍에미리트가 뒤를 이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10위, 중국이 12위, 한국이 21위, 독일이 23위, 일본이 3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강점은 R&D 인프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과학 인프라는 한국의 전체 평가 보조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으로, 2024년 1위 이후 2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기술 인프라는 전년 대비 12단계 상승한 27위로 개선됐으나, 중국 1위, 미국 4위, 독일 17위, 일본 21위와 비교하면 주요국 중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 효율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여전히 보완 과제가 확인됐다. 한국의 기업 효율은 전년 대비 10단계 상승한 34위를 기록했으며, 태도 및 가치관 항목은 15단계 상승한 18위로 크게 개선됐다. 반면 경영활동 효율은 49위에 머물러, 한국의 과학·기술 기반이 기업의 경영 역동성, 의사결정 효율, 조직 운영혁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재 유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IMD 「World Talent Report 2025」 기준 한국의 세계 인재 경쟁력은 37위였으며, 이 중 매력도 부문은 전년 대비 13단계 하락한 48위를 기록했다. 특히 두뇌 유출 항목은 48위, 고급 해외인력 유인 환경은 61위로 나타나 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과 해외 우수인력 유치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단순한 비용·규모 경쟁에서 제도 신뢰성, 정책 예측가능성, 기업환경 안정성, 인재 정착 여건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AI, 반도체 등 전략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R&D 인프라의 강점을 기업의 혁신성과 시장 대응력으로 연결하고, 글로벌 인재가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기술혁신연구원 김종훈 원장은 “한국은 과학 인프라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업활동 효율과 인재 유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다”며 “앞으로는 R&D 투자와 기술역량이 기업의 혁신성과 글로벌 인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인재 정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26년 한국의 세계 경쟁력」 보고서 전문은 산기협(산업기술혁신연구원)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